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과 정신간호

최 남 희

(서울간호전문대학)

I. 서

인류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간호는 크리티아전쟁 때에 활약한 나이팅게일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희생적, 헌신적 태도가 요구되었고 실제로 간호원들은 그러한 요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간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자 희생적, 헌신적 태도만이 간호에 있어서 강조될 수 없었다. 따라서 많은 간호연구자들이 간호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고심해 왔다. 드디어 오늘날은 간호학자들은 간호의 대상이 질병을 가진 환자가 아니고 인간 그 자체라는 데에 합의하게 되었다.

간호가 그 대상을 인간자체로 하는 만큼 우리는 보다 넓게 그리고 깊게 인간에 관한 사항들을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의 과정을 통하여 생득적인 기초 위에 환경내에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개체로서의 인간이 갖게 되는 환경일반과의 상호작용 중에서 우리는 특히 다른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한다.

사람은 생활현장에서 수많은 문제와 만나게 되며 그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혹은 해결하지 못하는 채 살아간다. 문제와 직면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의식적·무의식적 노력이 성

공하지 못할 때 인간은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구체적인 질병적 증후들을 갖게 되어 비로소 도움의 대상을 찾게 된다. 간호원들은 실제로 그러한 문제를 갖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며 그들이 효과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간호는 독립적이면서도 인접과학의 효과적인 응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간호시행을 위하여 우리는 사회속의 인간을 연구하는 한 방법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상징적 상호작용이란 무엇인가?

많은 심리학적 이론들이 척추동물일반의 행동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인간자체보다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공유하는 측면을 연구하여 그때로 인간에의 적용을 시도한다. 동물과 다른 인간을 독특한 특성을 찾기 보다는 개, 쥐, 원숭이 등을 연구하여 그 결론을 인간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다른 동물과 다른 특성을

그 자체로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가정(assumption), 정의(definition), 일반명제(general proposition)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마음, 자아, 사회(Mind, Self and Society)」를 저술한 George Herbert Mead의 기본적 사상에 따라 Herbert Blummer에 의해 구체적 면모를 갖추게 된 사회학 이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사회적 행위가 실현되는 핵심적 요소로서 몸짓(gesture)을 중요하게 다룬다. 몸짓은 유의미한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분류되며 유의미한 몸짓은 자아의식적(self-conscious)이고 무의미한 몸짓은 비자아의식적(unself conscious)이라고 간주된다. 유의미한 몸짓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으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속에서 상징을 배우게 된다.

개인의 행위는 자신을 초월한 광범위한 사회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은 소속된 집단의 행위와 관련해서만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적 경험은 의사소통과는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게 되며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아, 자아의식, 의사소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다양한 상징(symbol)을 사용하는 것이며 상징적 상호작용은 해석(interpretation)과 정의(definition)의 반복적인 과정을 갖게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중요한 이론가인 Herbert Blummer에 의하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행위의 의미 획득이나 타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해석(interpretation)과 다른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행위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전달하는 정의(definitin)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비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 인간은 유의미한 몸짓을 사용하고, 상호간에 서로의 태도를 해석하며 그 해석에 따른 의미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따라서 사람은 해석하고 받아들일 관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유의미한 몸짓을 하지 않

는다.

지나치게 간략한 느낌이 있지만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성립배경과 그에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이제 그 이론의 골자가 되는 내용들을 간추리고자 한다.

Ⅲ.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주요 가정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가의 한 사람인 Arnold Rose는 본 이론을 체계적이고 간략하게 요약하여 몇 가지의 가정과 명제를 제시해 주었다. 이제 Rose가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이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가정 1. 인간은 물리적 환경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환경안에서 생활한다.

「상징」은 사람들에게 의미(meaning)와 가치(value)를 가진 자극이다. 여기에서 의미는 인간이 실제로 개념을 사용하여 행위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가치는 「의미」에 대하여 느끼는 「호감」이나 「반감」을 뜻한다.

실제로 모든 상징은 구체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상징이 개인에게 주어지면 개인은 그것을 정의하여 자신에게 가치와 의미를 갖는 자극으로 받아 들인다. 여기에서의 의미와 가치는 상징적이고 일반인에게 공유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Sullivan은 합의된 타당성(consensual valida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인간이 상징적 의사소통의 독특한 능력을 갖는 것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성기관(vocal apparatus)과 수많은 상징들의 의미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신경조직(nervous system)을 가졌기 때문이다.

가정 2. 인간은 상징을 통하여 자신이 자극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타인을 자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역할취득(role-taking)을 포함한다. 이는 감정이입(empathy)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역할취득에 의미있는 상징(significant symbol)이 필요한데 이 의미있는 상징은 자연적 징후(natural signs)와는 다른 것이다. 이들 둘은 똑같이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나 상징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자연발생적 징후는 다만 타자의 행위를 갈을 수 있게만 하는 것일 뿐이다. 의사전달자가 소리나 몸짓으로 표현할 때 상대방은 자기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받아 들인다. 그러한 상징적 의사소통은 사회적 과정이다.

역할취득은 일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집단·사회같은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일어난다.

가정 3. 상징을 의사소통함으로써 인간은 행동의 방법이 되는 수 많은 의미와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배운다.

오늘날 성인들의 대부분의 행위는 학습된 것으로서 개별적인 시행착오(trial and error)나 조건화(conditioning)에 의해서 보다는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배운 것이다.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학습과정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한번의 실수로 그 다음번의 실수를 조절할 수 있다.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보다는 많은 것을 배우나 동물은 올바른 반응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 필요하다. 요컨대 인간은 행동을 바로 잡아 주고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의미의 집합인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가정들에서 첫번째 일반명제(general proposition)를 추론해 낼 수 있다.

일반명제 1. 문화학습을 통하여 인간은 타인의 행위를 예측하고 예측된 타인의 행위에 자신의 행위를 맞춘다.

이 명제가 진실일 때만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가정 4. 상징의 형성은 단순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끔 거대하고 복잡한 집단에서도 발생한다.

이 가정은 동일집단에서 발생가능한 것으로 기대되는 의미와 가치의 다른 측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역할과 사회상황적 입장에서 보는 구조(structure)의 개념으로 우리는 집단의 두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역할은 개인의 행동을 유도·지시하며 개인은 각각 사회적 관계에서 역할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행동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두번째 일반명제가 추론된다.

일반명제 2. 개인은 다른 대상·행동·특성들을 정의하는 것처럼 자기자신을 정의한다.

개인은 구체적인 역할수행자(role player)로 자신을 정의한다. Mead는 「나」의 개념을 두가지로 분류했다. 그것은 주관적 견해로서 타인의 태도를 통하여 스스로가 떠맡은 「Me」와 「Me」의 바탕위에 정립되고 타인의 태도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인 「I」이다. 「I」의 반응을 타인의 견해에서 볼 때 그것이 역할(role)이다.

가정 5. 사고(thinking)는 개인적 가치와 그에 따른 행동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상징적 해결과 미래행동의 예측에 관련하여 그 결과의 이익과 불이익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즉, 사고는 상징적 과정으로 이를 통해 경험적 자료의 의미를 유출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사고과정을 통한 경험이 시행착오보다 효과적이라고 받아들일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상적 시행(trial)이 행동적 시행보다 앞선다.

둘째, 인간은 이전의 성공적 해결책보다 더 나은 최상의 해결책을 선택한다.

셋째, 위험이 포함된 시행을 해야할 경우 경험적으로 위험을(risk)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사고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미래와 과거를 현재에도 끌어들이고 과거를 상징적으로 상상하는데 자기자신의 경험 뿐 아니라 타인의 경험도 함께 상상한다.

이상의 서술들은 상당히 분석적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가정 1. 사회는 개인에 우선한다.

이 가정은 결코 문화결정론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화적 기대를 다른 곳에 우선시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가정 2. 사회화과정은 3단계로 일어난다.

첫 단계는 정신작용적 과정(psychogenic process)을 통한 학습으로 습관형성의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습관이 차단되었을 때 수행되지 못한 완수해야 할 행동의 측면을 언어를 사용하여 상상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어휘의 증가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의미를 획득하여 자신의 마음과 같은 의미를 타인에게 지시·전달 가능케 한다.

가정 3. 사회화는 보편문화(general culture)로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문화(subculture)로도 지향한다.

가정 4. 구집단(old group), 문화적 기대, 개인적 의미와 가치 등이 준거판계상 제외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 가정의 「인간은 결코 어느 것도 잊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공통되는 부분이다. 인간의 기억은 단순한 기억의 축적이 아니라 축적된 의미와 가치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새롭게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인생사에 따른 생성물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독특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과 행동의 관계가 고도로 복잡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상징으로 학습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은 역사성있는 문화를 갖는다. 셋째, 따라서 인간은 무엇인가 배우지 않을 수 없고, 자아개념이 인간행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미 습득된 자아개념은 전 생애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간략한 요약으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이 얼마나 설명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더 많은 이해를 위해서는 Mead의 「Mind, Self and Society」와 Herbert Blummer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전망」을 더 읽는 것이 좋겠다.

IV.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간호상황에서의 적용

간호가 각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여 가장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건강상태를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때 간호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 크다 하겠다. 그러한 역할 중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환자와의 관계형성은 어느 간호분야에서나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특히 정신분야의 간호현장에서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정신분야의 독특성이기도 하다. 환자가 드러내는 행위, 말, 몸짓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되어 환자의 내적·외적인 문제를 파악해 낼수만 있다면 실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함축된 의미의 탐구를 통하여 간호는 한걸음 더 환자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며 위기상황 극복 혹은 문제해결에의 첫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원은 복합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가 표현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내야만 한다. 관찰기술, 면접기술, 해석의 기술, 정의의 기술 등등이 두루 사용되어 지겠는데 그러한 모든 간호원 자신의 자원을 사용할 때에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구체적인 가정들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모든 언행은 단순한 순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생활의 반영이며 과거의 그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호원은 환자 자신의 상징적 표현과 그러한 상징적 표현을 습득하게 된 과거의 경험들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낼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경험적 자료들로 부터 새로운 경험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를 새로운 각도에서 고려하게 된다. 환자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을 인식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합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간호원은 다양한 상호작용과정을 환자와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환자측의 판단뿐 아니라 간호원 자신의 여러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병동의 간호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태만상의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그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과 치료적 행동들이 주어질 때 합리적인 방법의 제시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이 요구된다. 어린이들의 각종 놀이는 실제로 놀이를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고 새로운 역할을 취득(role-taking)의 계기가 되고 상호작용 분석과 같은 분석요법에서도 정신간호는 실제로 앞에 기술한 이론의 바탕위에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환자인 개인은 어떠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어떠한 개인적 역사를 가졌는가, 그러한 개인역사 및 환경적 배경은 현재의 개인에게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등의 치료적 정보가 되는 많은 사항들을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기초가정들을 이용, 보다 가치있게 도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 간호교육과 간호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몇 가지 가정들과 일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V. 結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간상호작용에서의 상징의 사용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징을 사용하고 상징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서 인간은 더욱 복잡한 문화적 환경을 갖게 되고, 또한 더욱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경로를 갖게 된다.

이는 일면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면으로는 더욱 많은 문제의 출현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석과 정의의 과정을 통하여 상징의 사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환자의 문제를 확인해 내고 그러한 문제의 확인이 치료에로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간호학자나 간호현장 종사자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기초적 가정을 활용하여 인간의 복지 및 건강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Turner, J. H.,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The Dorsey Press, 1978.
 신용하외역, Louis A. Coser, 『사회사상사』, 일지사, 1979.
 Arnold M. Rose, A systematic summary of symbolic interaction theory, 『Conceptual models for nursing practice』, 양문사, 1978년, Reprint.
 고영복, 『현대사회학』, 일지사, 1972.
 Pamela A. Price, 『Theoretical models』, 『Comprehensive Psychiatric Nursing』, McGraw-Hill Co.
 이소우 번역, 『의사소통론』 대한간호협회, 1978.
 전산호, 김수지, 편역, 『간호철학과 윤리』, 수문사, 1979.
 김순자, 이숙자, 『간호학개론』, 수문사 1978.